주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며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간이다.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날(주일)은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시고, 제자들과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깔고, 종려나무를 흔들며 기뻐한 날이라고 해서 “종려 주일”이라고 한다.

왜 이렇게 하셨을까? 단순히 겸손히 사는 삶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세가지가 있다. 예수님 오시기 수백년 전에 이 축복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시고, 마침내 그 분이 오셔서 성취시킨 것이다. **언제 이 언약을 주신 것인가?**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 가장 슬프고, 고통스럽고, 절망스런 시간이었다. 거기에 불잡혀 살지 말고, 이 언약을 붙잡고,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.

1.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이다(9절).

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.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, 사랑이고, 소원이다(요3:16, 딤후2:4)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축복이 이것이다. 그 축복을 깊이 누리기 위해 반드시 세가지 잡아야 한다.

1) **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**라고 했다.

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,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과 인생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말이 된다.

- ① **첫 인생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모든 인생이 죄와 사망과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유다(롬5:12)**
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. 조금 더 악하게, 덜 악하게 사느냐의 차이이다.
- ② **하나님이 성경 속에 율법을 주신 이유도 이것이다(롬3:20).**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. 그래서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살 수 없다고 했다(눅12:2).
- ③ **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는가? 의로우신 재판장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했다(시7:11, 잠20:22).**
문제는 하나님이 이 공의로 판단하시면 세상과 인간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.

2) **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**라고 했다.

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. 십자가의 고난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나타난 사건이다.

- ① **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죄 없는 그 분으로 처절한 고난과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다.**
우리가 그냥 허물을 용서받고,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, 축복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이 아니다.
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(대속), 우리는 거기서 해방 받은 것이다(롬8:1-2)
- ② **아무 조건없이 허락한 사랑이다.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절대 사랑이요(롬5:8), 영원한 은혜이다(엡2:8-9)**
나의 악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,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(사43:25).
그래서 어떤 실패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회개하고, 그 은혜를 붙잡고,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이다.
- 3) **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**라고 했다.

① **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.**

- ① **고난 주간은 그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.**
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심의 시작이다(빌2:7)
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(빌2:8)
나귀를 타시고 오신 이유도 그것이다. 그 언약을 잡은 백성들이 “호산나”(“나를 구원하소서”)를 외친 것이다.
- ② **그 수치와 고통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, 가문의 저주, 영원한 지옥 저주를 끝내신 것이다(요19:30).**
우리의 영적 문제, 마음의 상처와 고통, 육신의 저주와 질병까지 끝내신 것이다(사53:5)

2.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다. 우리가 불잡을 두 번째 언약이다(10절).

- 1) **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병거와 전쟁하는 활들을 부수고, 그 위에 화평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했다.**
- ① **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두 번째가 이것이다(사9:6).** 분열과 다통과 전쟁 대신 화평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.
그 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었다.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, 모든 사람이 화평하는 길을 여신 것이다(엡2:14).
- ② **허물과 죄를 따져야 하는 율법의 저주도 폐하시고, 자기 안에서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다고 했다(엡2:15)**
가정에서도, 직장에서도, 교회에서도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는 늘 따지고, 싸우고 살아야 한다.
- 2) **이 화평의 축복을 가진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?(10절)**
- ① **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 화평의 축복을 전하라는 것이다(전도와 선교)**
우리가 237, 오천중족을 살리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. 이 복음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.
- ② **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이것이다.**
그 때에 평화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,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.
그 곳이 눈물,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, 우리가 함께 왕 노릇 할 것이라고 했다(계21:4, 22:5)).

3. 세 번째 불잡을 언약이 있다.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참된 씨앗의 언약이다.

너무 자기 기준과 욕심과 야망으로만 가득한 씨앗들이 많아 이 땅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.

- 1) **그리스도께서 참된 씨앗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이다.**
권위와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, 섬기고 희생하는 것의 상징인 나귀를 타신 것이다(마20:28).
중요한 위치와 직분을 가진 사람일수록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.
말씀을 목상하고, 기도의 힘을 얻고, 집중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야 섬기는 삶도 가능하다.
- 2) **언약하기 짝이 없는 어린 나귀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타신 것이다.**
- ① **보잘 것 없는 우리 인생 속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다(성도의 정체성).**
구원받은 순간 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닌 그 분이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(벧전2:9)
그 축복을 누리면서 이 험한 세상으로 가라는 것이다.
- ② **이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, 누구라도 살릴 수 있다(참된 씨앗)**
반대로 이런 축복을 못 누리면 중요한 자리에 있을수록 스트레스로 눌리고,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.

결론-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 될 수 있다. 그러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? 우리가 불잡은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, 잃어버린 것의 갑절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(11절). 문제에 갇혀 있는가?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고, 그 분께로 나오라고 했다(12절). 종려 주일에 주시는 세가지 언약을 붙잡고,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인생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한다.